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창세기 33:1-20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여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 받지 못할 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용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의 불행

용서받지 못한 채로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어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가해자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야 평안이 깃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분한 마음을 품으면 스스로가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원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원한의 피해가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살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자신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되지 않는 등의 고통도 뒤따릅니다. 분노는 타인을 파멸시킬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자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예배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의 결과는 용서를 받는 일이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까닭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으로 20년의 세월동안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에 압복강변의 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서가 4백인을 거닐고 온다고 하자 야곱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오죽했으면 에서에게 가축의 떼를 선물로 먼저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과 부인들을 앞세웠겠습니까. 그러고도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새워 고민을 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식들과 아내의 서열을 세운 묘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제일 앞에 여종과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세웁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라헬이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일 앞에 서서 일단 무릎을 꿇고 무조건 절부터 하고 봅니다. 야곱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7번 절을 하는 것을 통해 모든 말을 대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렇게 두려워 했던 결과는 예상외로너무나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공포에 가득차서 에서와 대면한 곳에는 야곱이 생각하고 있던 분노에 가득찬 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발견하자 마자 달려와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맞닥뜨렸던 사건의 결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앞 당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도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탕자는 번민과 고민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지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차마 죽지 못하는 심정으로 귀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집에는 분노하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지 같은 모습의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준비한 새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통과 숨겨진 은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자신을 야단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잔치를 베푸시면서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었다는 것을 보며 야곱이 집을 나갔었던 그 긴 세월동안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추측해 봅니다. 야곱이 떠난 이후에 에서는 한동안은 분노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후에 에서의 마음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부동켜 안고 올 수는 없을까.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부동켜 안고 우는 장면을 볼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감동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무일푼의 혼자였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과 가축떼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누구냐’는 에서의 질문에 야곱은 20년의 기막힌 질고의 세월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대답합니다.

고통과 저주의 시간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성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이었던 것 같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거나 얼어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8절을 보십시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는 두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를 만나러 오는 여정 중에 만난 가축떼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물이라기 보다는 뇌물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에서의 말을 보면 야곱을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워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뇌물이었던 예물을 보낸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는 진정한 용서는 물질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서는 물질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은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화해

물질로 상처가 보상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들은 화해가 물질적 보상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그럴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도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선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주려고 했던 물질이 있는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에서의 용서를 받고 난 야곱에게는 그 물질이 뇌물이 아니라 ‘감사 헌금’처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드리는 여러 헌금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주고 받는 것에 성격이 달라집니다.

용서 받은 야곱에게는 형의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낍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듯 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무섭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침묵하시고 숨어계시는듯이 보였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겨울은 지나가고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화해를 하면 내 마음에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대지 위에 비가 오고 새싹이 돋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무척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옆구리 찔러 절박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억지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답입니다. 나는 내 소유에 만족합니다’. 소유함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는 법입니다. 물질이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 만큼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덜 가졌기 때문에 욕심과 야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못먹고 못입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불평을 만드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사람이 더 갖기를 원하고, 자신이 풍족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

고 더 많이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야망은 가질수록 더 커집니다. 열망과 파멸에 이르기 까지 말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만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방살이에도 만족하고, 직장과 가정에 만족하십시오.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이만큼 산 것은 내게 은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앞잡이가 되어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화해를 요청한 것은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화합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화해의 목적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훗날 더 큰 저주가 임할 뿐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약속의 땅

야곱은 에서에게 두 사람 사이의 화해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님을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도움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수준을 따라가다보면 빛을 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자신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 사는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켜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야망과 비전만이 온전할 뿐입니다.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만족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습니다. 그는 중 몇 사람이라도 달려 보내서 야곱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15~17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받음도 과하게 받은 것으로 여기며 더이상은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신세를 지려고 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야곱

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힘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살기로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숙곳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숙곳’이라는 말에는 ‘심,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안식을 합니다. 간단하게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듭니다.

예서와 야곱은 화해를 해서 용서했고 용서를 받으며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쁜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내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청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용서와 화해를 베푸십시오.

18~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발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 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숙곳에서 세겜땅으로 가서 하물의 아들들에게 은 1백개를 주고 약간의 땅을 삽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믿음이 자랐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땅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믿음을 사십시오. 그것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눈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벽두에 용서와 화해의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